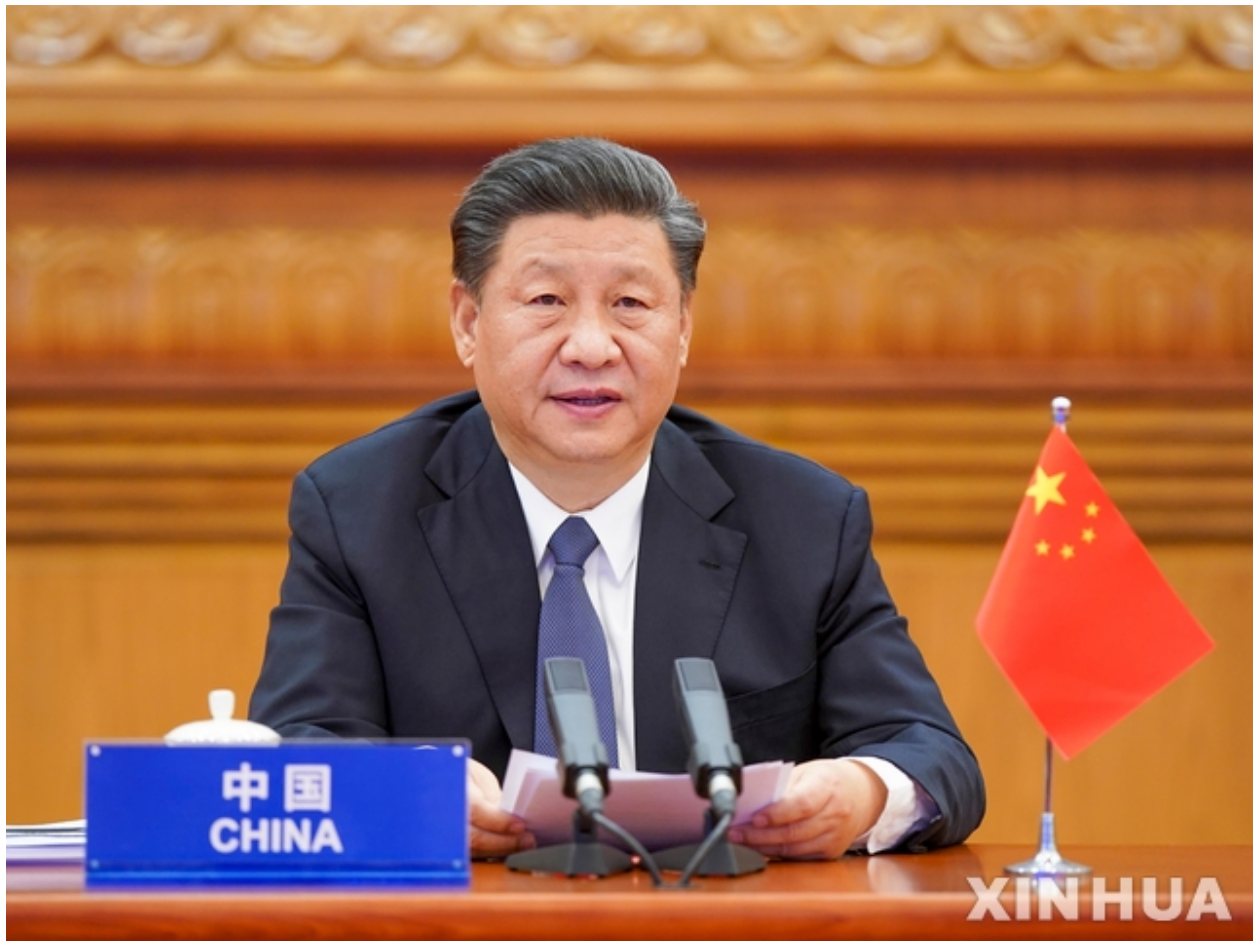


대한민국 뉴스
NEWSIS

中, 차세대 기술표준 정립 위한 '중국표준 2035' 곧 발표

기사입력 2020-04-27 14:38

중국제조 2025 이은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힘 보여주는데 초점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베이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3.27.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은 차세대 기술의 세계 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야심찬 15년 청사진 '중국 표준 2035'를 멀지않은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CN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이 인공지능, 통신망, 데이터 흐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이 휘두를 힘에 대해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2년에 걸친 숙고 끝에 발표될 '중국 표준 2035'는 '중국 제조 2025'에 이은 다음 단계로 2025년에서 2035년에 이르는 10년을 정의할 기술에 훨씬 더 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컨설팅 업체 '호라이즌 어드바이저리'의 에밀리 드 라 브루이어 공동창업자는 "세계는 지금 새로운 기술 체계와 네트워크 기술에 의해 정의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아직 그 지도자들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중국의 이 같은 계획은 이(지도자)를 결정할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누가 세상의 권력을 손에 잡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기술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상호 운용성을 정의하는 표준을 갖고 있다.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많은 기술들이 표준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퀄컴이나 에릭슨 같은 미국 또는 유럽의 주요 기술회사들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 표준 설정의 일부였지만 지난 몇년 전부터 중국이 세계 기술 표준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2020년 국가표준화 작업의 요점'이란 문서를 공개했는데, 브루이어와 함께 '호라이즌 어드바이저리'를 공동 설립한 네이션 피카리스는 '중국 표준 2035'는 향후 중국의 계획에 대해 통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발표된 '2020년 국가표준화 작업의 요점'은 신세대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표준 시스템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5G, 인공지능(AI)에 대한 표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세계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기술로 여겨진다.

'2020년 국가표준화 작업의 요점'은 또 중국이 국제 표준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중국이 국제 표준에 대해 더 많은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2020년 국가표준화 작업'은 국내 기준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2중 플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 ▶ 네이버에서 뉴시스TV 구독하기
-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9836152>